

전주예술난장 신호탄... 기획단 '장단' 출범

10월 미래문화축제와 함께 개최... 기획·홍보·실행·평가 주도할 예술인 선정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주예술난장이 예술인 기획단 선발을 통해 사업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7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전주예술난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팔복동 일원에서 미래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이번에 선발된 예술인 기획단은 전주예술난장의 장(場)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로서, 거리 예술의 역동성과 예술인의 주체성,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난장스러운 축제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장단(場團)'이라는 명칭은 기획의 장(場)을 여는 집단이라는 의미와 호흡을 맞춘다는 동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예술인 기획단 <장단>은 제3회 전주예술난장의 기

획부터 홍보,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지역주민 협의회 및 ESG 실천 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축제의 지역 밀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전주에 거주 중인 현업 예술가들로 구성됐으며, 향후 3개월간 활동비와 팔복예술공장 내 사무공간을 지원받는다.

기획단은 연극 분야의 하형래 예술인이 단장을 맡았으며, 그는 전년도 전주예술난장의 현장 운영과 주민 협력 분야에 참여한 바 있다. 함께 선발된 단원은 전통음악 분야의 김원곤 예술인, 재단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자 오민혁 예술인, 그리고 영상·사진 분야의 유효창 예술인이다.

하형래 단장은 "지난 행사에서 주민들과 협업하며 팔복동의 지역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예술가, 지역, 주민, ESG 실천이 공존하는 멋진 축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원곤 단원은 "전국의 우수한 거리예술 작품들이 전주로 모일 수 있도록 전주 예술가들이 환대하고, 동시에 지역 창작자들이 조명받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예술인 기획단이 곧 전주예술난장의 얼굴"이라며 "지원과 협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예술난장은 1960년대 전주의 산업화 상징인 팔복동 산업단지의 기억 위에 문화예술을 더해 도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리예술축제로, 오는 10월 17~19일 팔복예술공장과 그 일대 거리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의 여름밤, 빛으로 국가유산 물들이다

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군산세관 본관' 30일까지

올해 최초로 선정된 군산시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군산세관 본관'이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3일간 구군산세관 본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군산세관 본관'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통해 야간에 국가유산을 더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군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할아버지와 손녀 세대의 시간여행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인 '백년의 군산'은 조선은행 창문을 활용해 옛 군산 사람들의 삶을 빛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구군산세관 본관·구일본제18은행·구조선은행 등 근대 문화유산에서 군산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줄 다채로운 공연과 설치미술, 체험형 콘텐츠 등도 마련됐다.

특히 △신바람 여정(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도깨비 금고(구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야체망의 창고(구군산세관 본관)에서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



올해 최초로 선정된 군산시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군산세관 본관'이 오는 8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구군산세관 본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동식 미디어아트 '빛의 자전기'는 행사장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군산의 옛 모습과 공간을 이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

화를 담고 있는 국가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야간에 더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을 활용한 군산만의 야간 콘텐츠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간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국가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8·9·15·16일 야간 무료 개관 운영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2025 군산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열리는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야간 무료 개관을 추진한다.

이번 무료 개관은 '2025 군산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 기간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차 야간 무료 개관은 8일~9일이며, 2차 야간 무료 개관은 15일~16일로 관람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 면적 4천248㎡ 규모로 해양물류역사관·유아체험관·시민열린갤러리·기획전시실·군



대생활관 등 살아있는 근대역사 교육 문화시설로 사랑받고 있다.

야간 무료 개관 외에도 박물관은 관람객들을

위해 매월 3회 토요일 오후에는 연극, 일요일 오후에는 전래놀이 행사를 선보이는 중이다. 또, 실내에서는 토·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미술과 서커스 등 다채로운 거리문화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야간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야간 무료 개관을 통해 관람객의 체류 연장에 기여하고 군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예술 교류 '꿈의 페스티벌' 참가

무주청소년수련관 소속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열리는 '2025 꿈의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예술 캠프로, 국내외 아동·청소년 1,000여 명이 모여 예술을 통해 교류하고 성장하는 자리다.

아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8월 7일 열리는 합동공연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작곡된 주제곡 '나의 내일을' 초연 무대에 함께하며 감동적인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페스티벌은 '감각을 깨우는 순간의 첫 숨'을 주제로,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무용, 연극, 해외 합창단 등이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무주=전문석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PLAY 가온' 퓨전국악 공연 16일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퓨전국악 밴드 'PLAY 가온'의 창작 공연 <심청전-심학규의 찰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고전 설화 '심청전'을 아버지 '심봉사'의 시선에서 재구성한 창작 무대로, 원작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감정과 서사를 더욱 깊이 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소리꾼의 해설과 함께 전개되며 각 장면엔 맞춘 12곡의 자작곡이 극의 흐름을 이끈다.

무대에는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드럼, 베이스, 기타 등으로 구성된 재즈 밴드가 함께해, 전통 국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달빛연가', 'Show Me The 공양비', '인당수 가는 길', '부녀 상봉', '광명' 등 다양한 곡을 통해 심봉사의 내면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관람은 7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공연 예약은



8~11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8)

고창고아원

- 오상근 -

숙소동 공사를 관장 이명주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다. 건설업자가 하는 것이다. 농악전수관 공사에 입찰 들어오지 못하도록 눌러서 접근을 막을 대상은 건설업자들이지 이명주가 아니다.

산통 깨진 게 아니다. 하겠다고 나서는 놈들만 찾아다니며 인상을 쓰면 된다. 그걸 이명주나 농악전수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고창은 좁다. 고창읍에서 아무개와 아무개가 싸웠단 에피소드가 저 아래 대산면까지 퍼지는데 얼마나 걸릴까.

농악전수관에서 봤던 사람들은 선량해보였고 이명주는 순수해보였다. 그들이 설명이 강동식이 고창의 더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강패라는 걸 알고 있다 해도 그들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더럽고 지저분한 양아치 짓을 그들 앞에 낫듯이 보이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들에게 건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동식은 장구도 풍파리도 좋아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명주나 농악전수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다.

동식이 건달 신분이라 해도 그들 앞에서 건달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명주나 전수관 사람들, 아니 농악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건달이고 싶지 않다.

용돈이라도 벌라고 권했던 오정태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에이! 동식은 머리를 거칠게 흔들며 머릿속으로 스리슬쩍 기어들어오려는 정태의 낯짝을 떨어냈다.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굿패나 무업에 종사하지 않으셨어요?'

정태의 상관이 떨어져 나가자 빈 머릿속으로 이명주가 했던 말이 밀고 들어왔다.

"호호....."

동식은 쓴웃음을 낚았다. 이명주에게 실소를 날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비웃음을 날리는 건지 동식도 알 수 없었다.

출판진흥원,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수상작 발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재선, 이하 출판진흥원)이 '제주를 그리며 제주를 그리다'를 비롯한 '제12회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수상작 4종을 출판진흥원 및 전자책 바로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총 304종의 전자출판물이 접수됐다. 이 중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종(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 및 상금 1천만 원), 우수상 3종(출판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5백만 원) 등 총 4종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작 '제주를 그리며 제주를 그리다'((주)북핀)는 제주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소개한 에세이로, 제주 토박이이자 그림 작가인 저자가 직접 그린 제주 풍경 그림에 애니메이션 효과와 실제 제주의 소리를 더해 영상 콘텐츠로 제작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다음의 세 작품이 선정됐다. '상

상동물과 함께하는 경복궁' (국가유산진흥원)은 경복궁 전각과 상상동물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 기반 게임 요소와 자동 재생 기능을 결합한 체험형 멀티 콘텐츠다. '정밀 원역 이명선본 춘향전' (커뮤니케이션북스(주))은 고전 '춘향전'의 고사본 중 하나인 이명선본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2,800개 이상의 상세한 주석을 달아 전자출판물의 감성을 살렸다. '파우스트' (현대지성)는 괴테의 대표작을 완독 가능한 형태로 제작한 국내 최초의 전자출판 콘텐츠다.

심사는 기획성, 기술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접근성 구현 여부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량 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출판진흥원은 고품질 전자책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자출판 대상' 개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 JB문화공간, '살롱 드 클래식' 성황리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에서 지난 5일 성기선 전주시장 상임지회장과 함께하는 '살롱 드 클래식' 세 번째 공연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살롱 드 클래식'은 세계적인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감동적인 연주와 성기선 지회장의 깊이 있는 해설이 어우러진 JB문화공간만의 고품격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으로 이번 무대에는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 포크스오퍼 오케스트라의 종신 부악장에 임명된 바이올리니스트 유희승과 섬세한 표현력과 감각적인 연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나다숨이 초청돼 프리츠 크라이슬러, 카미유 생상스, 베토벤, 비토리오 몬티의 다양한 곡들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은 "휴가철에 공연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번 무대로 유희승 바이올리니스트의 팬이 되었다", "규모는 작지만 공연의 깊이와 감동은 대형 공



연 못지않았다" 등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주시향 성기선 예술 감독은 "오랜만에 전주 JB문화공간에서 시민들과 만나 더욱 반가웠다"며, "유희승 연주자의 바이올린 선율이 무더위 속 한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다가갔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 JB문화공간은 다채로운 공연, 강연, 예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하며,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